

#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한 공대협 기자회견

인천 지료실		
등록번호	구분	비고
WS	A4	61

일시 : 1995. 4. 11(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흥사단 강당(대학로 소재)

3/18  
주최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조일묵(의장), 장기철, 지영관, 김완, 민군식, 박영식, 김성재(상임대표)

##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한 기자회견

----- 0 순서 0 -----

- 사회 - 김성재(공대협 상임대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소개 - 조일묵(공대협 의장 ·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
- 지자체를 맞는 우리의 입장 - 지영관(공대협 공동대표 · 한국맹인복지연합회장)
- 후보 공천 기준에 대한 공대협의 입장 - 장기철(공대협 공동대표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정책과제 - 김완(공대협 공동대표 ·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장)
- 종합 질의 응답 - 참석한 기자와 공동대표
  -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한 장애인복지 정책 제안집 마련
  -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한 전국장애인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등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전까지만 하더라도 외부에 노출시키기보다는 내부에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여겨 그때 그때 두마하기에 급급했던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88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전후하여 장애인문제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여러 면에서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잠재되어왔던 많은 욕구들이 한꺼번에 노출됨과 아울러 약 450여개에 달하는 많은 단체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여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1992년 UN산하 ESCAP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애인10년을 선포하면서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만인을 위한 사회를 건설할 것을 권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맞추어 장애계가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었으며 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었다. 또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지난 3월 23일 대통령은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장애인단체, 시설, 임의단체 등 모든 장애인복지단체들은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화합과 단결로 공동의 인식과 대처를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장애복지계에서는 최초로 한국장애인복지대책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발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해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장애인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 제도 등 관련 정책개발
2. 장애인복지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혁
3.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공동대응
4.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연대사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감시·협조
6. 기타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공동사업

이러한 공동체가 하는 일은 앞으로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복지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나아가 400만 장애인들의 일치된 생각과 의지를 전달하는 장애인계의 결집된 힘이 될것이다.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조직

## 고문

김기창(한국농아복지회장) 김성수(대한성공회 대주교) 김학목(한국뇌성마비복지회장)  
문병기(한국재활재단이사장) 서광윤(한국장애인재활협 명예회장)  
엄요섭(한국장애인부모회 명예회장) 이우정(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 공동대표

조일목(공대협 의장·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 장기철(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지영관(한국맹인복지연합회장) 김완(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장) 민군식(삼육재활센터이사장) 박영식(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장) 김성재(공대협 상임대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 참여단체와 단체장

부림의 전화(김정희대장) 삼육재활센터(민군식이사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양금순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김성재이사장)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채종걸회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임통일회장) 한국농아복지회(김기창회장) 한국뇌성마비복지회(김학목회장) 한국맹인복지연합회(지영관회장) 한국장애인문인협회(방귀회회장)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김석원회장)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박영식회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조일목회장) 한국재활재단(문병기이사장) 한국정신지체애호협회(박일상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기철회장)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김완회장) 이상 17개 단체(가나다순)

## 운영위원

부림의 전화(김정희대장) 삼육재활센터(전봉윤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정진모실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김정렬실장)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김대성사무국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임통일회장) 한국농아복지회(심동섭상임이사) 한국뇌성마비복지회(백수웅사무총장) 한국맹인복지연합회(이규성과장) 한국장애인문인협회(방귀회회장)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박을종실장)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윤형영사무국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나운환과장) 한국재활재단(이청자부장) 한국정신지체애호협회(서병용사무국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사무총장)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이정섭부장) 이상 17개 단체(가나다순)

#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입장

국민소득(GNP)이 만불을 넘어서고 국가 경제 총 생산량(GDP)이 세계 13위에 달하며 선진국 OECD에 참가 신청서까지 제출한 오늘의 한국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4백만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으로부터 차별을 받으며 소외와 편견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장애는 결코 누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각종 공해와 정의롭지 못한 사회체제, 그리고 위험하고 잘못된 사회시설물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세계 각 나라를 살펴보면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는 장애 발생과 장애인문제를 사회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도 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UN은 보다 발전된 사회를 위해 장애인을 시혜적 대상에서 완전 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국민으로 살 수 있게 만들 것을 각국 가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각료회의에서는 아·태 장애인 10년을 1992년에 선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 국가별로 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UN과 APEC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도 이제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완전 참여'와 '평등'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장애인들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에서 각 정당이 후보 공천시 '장애인 10% 공천'과 '비례대표제 장애인'을 적극 공천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장애인 공천 10% 할당제와 비례대표제 장애인 공천은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며 시행하는 과정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각 영역과 부문에 걸쳐 효과적이고도 참다운 장애인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4백만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참여하여 공헌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만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약자들의 삶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올바른 장애인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를 공약하는 후보자들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입장에서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각 정당은 장애인이 정책 입안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보자 중 장애인을 10% 공천할 것을 촉구한다.
2. 올바른 장애인복지를 공약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다.
3. 각 정당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장애인복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사회적으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나 인사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뜻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5. 비례대표제에 의한 장애인을 적극 공천할 것을 촉구한다.

각정당은

1995. 4. 11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 지방자치 선거 후보 공천 기준에 대한 공대협의 입장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의 10%인 4백만 장애인이 살고 있으나 이들 소외계층이 열망하는 복지의 욕구를 올바르게 수렴평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채널이 전무했다. 그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올바른 복지정책의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직접적인 참여의지를 가진 장애인들에 의해 정치참여의 목소리가 즐기치게 제기되고 장애인 문제 해결을 더이상 행정부나 정치권에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증폭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대협은 오는 6월의 지방자치 선거를 우리나라 장애인 문제 해결의 혁명적 전환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 참여를 통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지자제를 통해 그동안 중앙단위 정도에서 거론되어왔던 복지의 개념을 지역의 장애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터전에서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각급 단체장 및 의원후보 공천기준에 대한 공대협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공대협은 깨끗한 도덕성을 갖추었으며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의 비전과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사람만이 올바른 장애인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참신한 인사들이 지역사회 일꾼으로 선출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공대협은 무엇보다도 공명선거, 정책위주의 선거문화 형성 못지않게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고 올바른 장애인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공천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후보공천 기준을 정하였다.

- 첫째, 후보자가 장애인으로 복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우선적 대상으로 한다.
- 둘째, 장애인복지를 몸소 실천하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며 복지문제를 우리세대가 해결해야 할 공통적 과제로 인식하는 인사
- 셋째, 올바른 사회복지를 지방행정에 접목시켜 보다 구체적이고 질적향상을 꾀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 넷째, 인권에 대한 이념과 철학이 투철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추진력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한다.
- 다섯째,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길 촉구한다.

우리 공대협은 후보공천 기준을 위에서 열거한 5가지로 정하고 각 정당들은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한 공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이제 우리의 선거문화도 바뀌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를 빌미삼아 개인적인 치부에만 급급한 줄부나 과거 장애인복지에 부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거나 소극적인 사람은 공천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1995.4.11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정책과제

기회

Why:

장애인복지  
27.10.27  
3차년도 지역아카데미

3차년도 3차년도

- I.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II. 내실있는 장애인교육을 위해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강화해야 하고 시·도 교육청에 장애인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 III. 장애인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건축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시·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편의시설 추진 계획을 매년 내실있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IV. 장애인 의료재활의 총체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V. 4백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의 장애인에 대한 지역별 기초 조사가 현실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 VI.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주택 등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현실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 VII. 각 시·도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장애인고용에 관한 행정지도를 책임지는 등 지방정부는 내실있는 장애인복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력화